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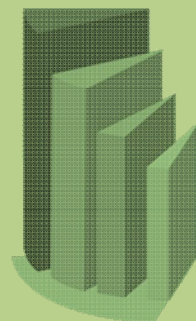
제2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04.10)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CONTENTS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3
II. 주요 조사 항목	4
III. 가중값 배율	5
IV. 표본의 특성	6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9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7

PART 1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조사 규모

▶ 총 1,511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조사 방법

▶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프레임

▶ 무선전화 가상번호(89.4%) + 유선전화 RDD(10.6%)

응답률

▶ 17.9%(무선전화 18.5%, 유선전화 14.1%)

조사 기간

▶ 2024년 3월 31일(일) ~ 4월 1일(월) (총 2일간)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4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II 주요 조사 항목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 선거 관심도
- ▶ 투표 참여 의향
- ▶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 ▶ 투표 예정일
- ▶ 사전투표 하고자 하는 이유
- ▶ 지역구 후보자, 비례대표 정당 결정 여부
-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 및 정책 인지 여부
-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
- ▶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
- ▶ 후보자 선거법 준수 여부
- ▶ 투표 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반영 여부
- ▶ 선거법 위반행위 경험
 - 돈봉투, 선물, 음식물, 선심 관광 등을 제공
 - 답례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 ▶ 선거법 위반행위 인지 시 신고 의향

정치 및 선거참여 인식

- ▶ 투표 효능감
 - 선거를 통한 국가 전체 미래 결정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속 활동에 대한 신뢰도
-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Ⅲ 가중값 배율

구분		조사완료[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	사례수(명)	%	
전체		1,511	100.0	1,511	100.0	1.00
성별	남자	770	51.0	748	49.5	0.97
	여자	741	49.0	763	50.5	1.03
연령별	18~29세	235	15.6	241	16.0	1.03
	30대	220	14.6	224	14.8	1.02
	40대	252	16.7	270	17.8	1.07
	50대	296	19.6	297	19.7	1.00
	60대	292	19.3	262	17.3	0.90
	70세 이상	216	14.3	218	14.4	1.01
권역별	서울	280	18.5	282	18.7	1.01
	인천/경기	469	31.0	484	32.0	1.03
	대전/세종/충청	164	10.9	162	10.7	0.99
	광주/전라	152	10.1	147	9.7	0.96
	대구/경북	148	9.8	146	9.7	0.99
	부산/울산/경남	227	15.0	225	14.9	0.99
	강원/제주	71	4.7	65	4.3	0.91

주)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성/연령/지역비를 따름



IV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수(명)	%
전체		1,511	100.0
성별	남자	748	49.5
	여자	763	50.5
연령별	18~29세	241	16.0
	30대	224	14.8
	40대	270	17.8
	50대	297	19.7
	60대	262	17.3
	70세 이상	218	14.4
권역별	서울	282	18.7
	인천/경기	484	32.0
	대전/세종/충청	162	10.7
	광주/전라	147	9.7
	대구/경북	146	9.7
	부산/울산/경남	225	14.9
	강원/제주	65	4.3
직업별	경영/관리/전문 사무직	544	36.0
	서비스/판매/영업직/ 생산/노무직	158	10.4
	자영업	256	16.9
	농/임/어업	31	2.0
	주부	264	17.5
	학생	104	6.9
	무직/기타/응답거절	154	10.2
학력별	중졸 이하	148	9.8
	고졸	385	25.5
	대재 이상	961	63.6
	모름/응답거절	17	1.1
소득별	200만원 미만	198	13.1
	200-400만원 미만	379	25.1
	400-700만원 미만	433	28.7
	700만원 이상	338	22.4
	모름/응답거절	163	10.8

PART 2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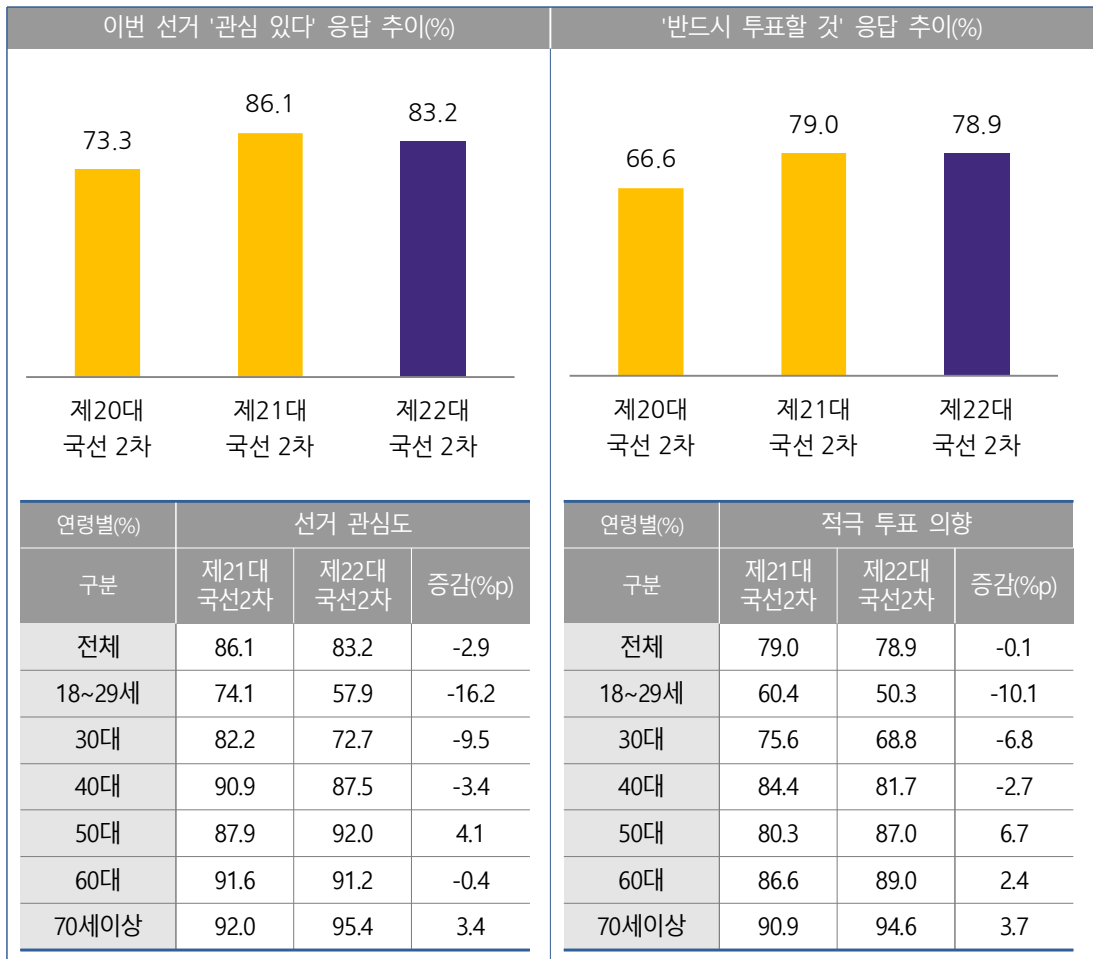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 있음' 83.2%, '반드시 투표할 것' 78.9%

→ 제21대 국선과 비교해 선거 관심도는 50대와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적극 투표 의향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승하였으며,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이 모두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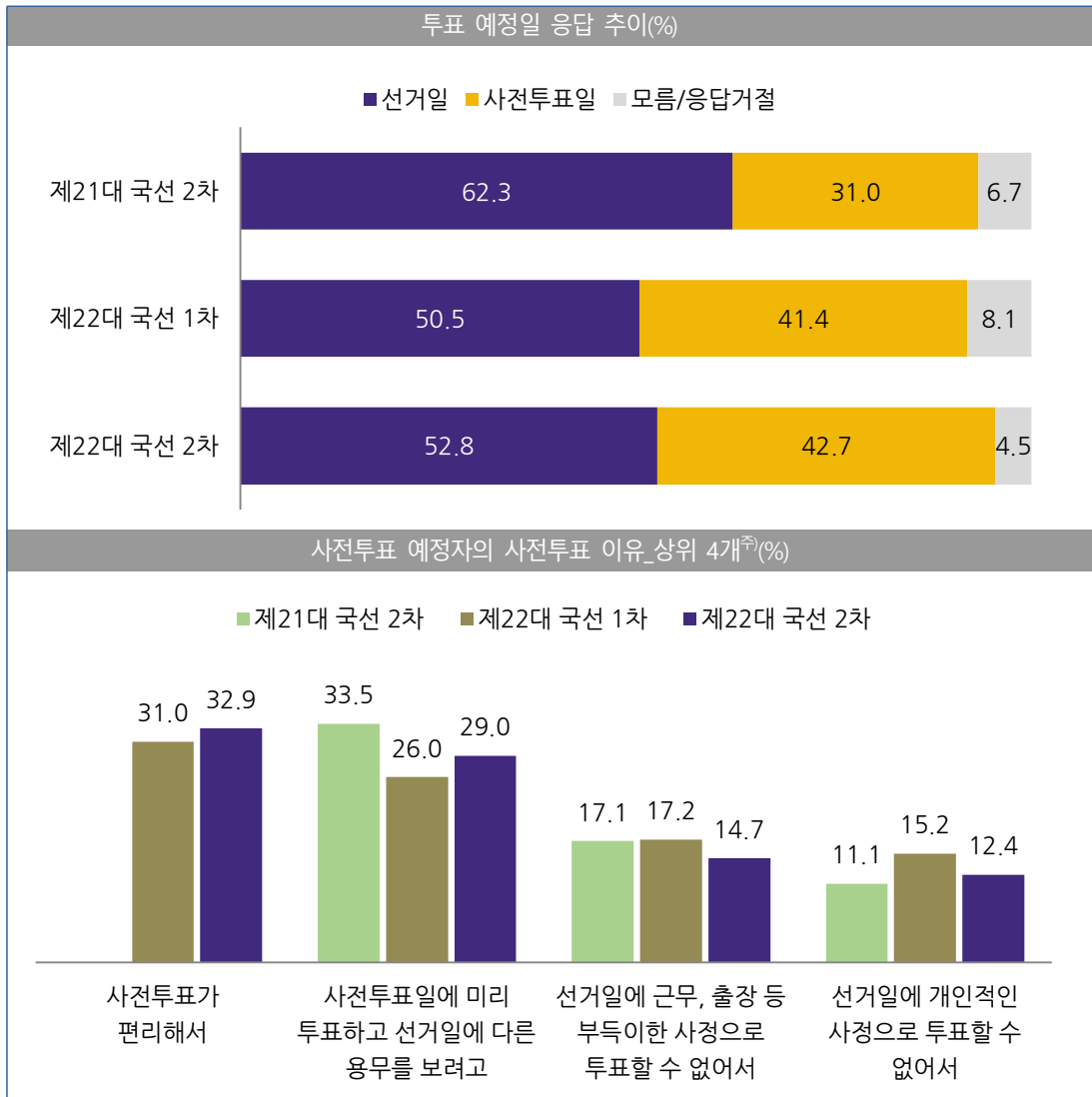


2. 투표 예정일 및 사전투표 이유

● 선거일 투표 52.8%, 사전투표 42.7%

→ 사전투표 의향이 제21대 국선 2차 대비 11.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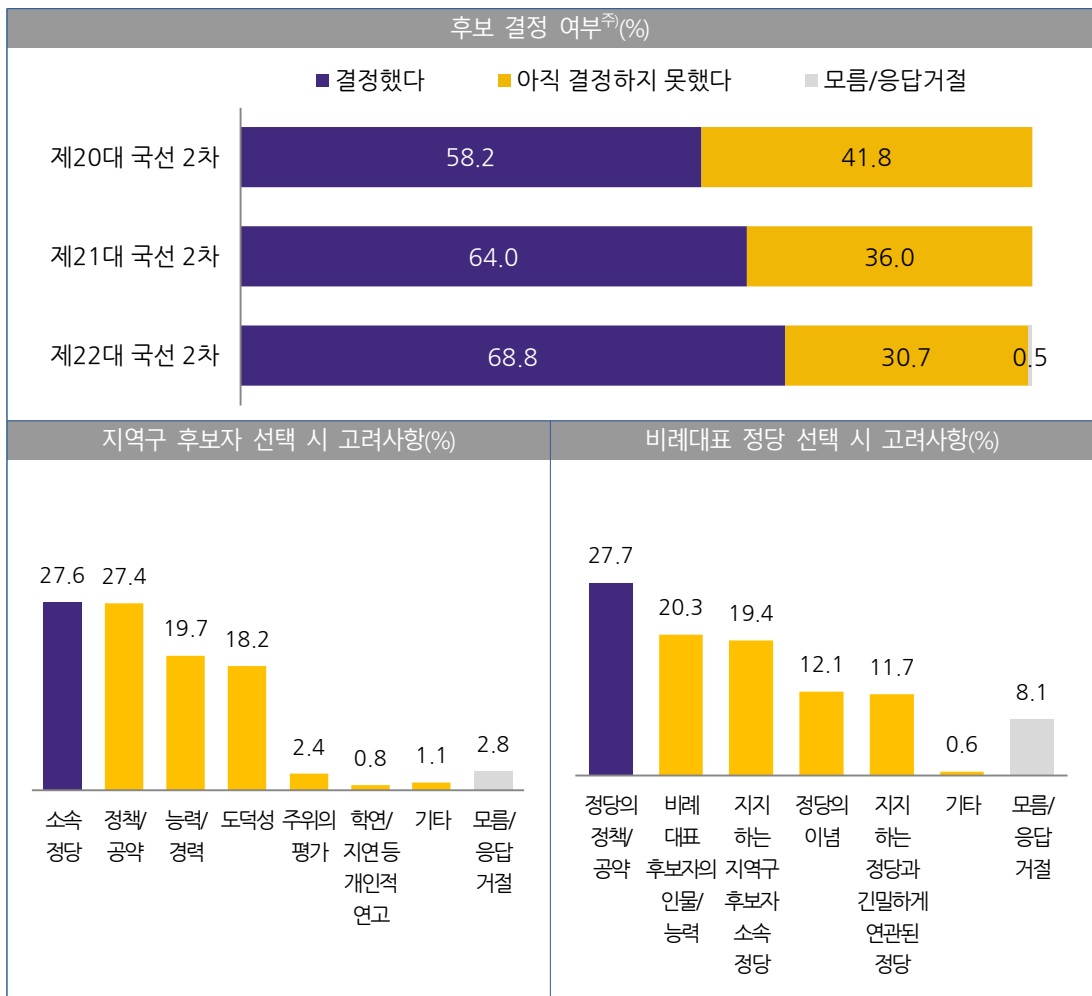
●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3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주) ‘사전투표가 편리해서’는 제22대 국선 1차에서 최초로 추가된 선택지로 결과 해석 시 주의 필요

3. 지역구 후보자 결정 여부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지역구 후보자 결정' 68.8%, 제21대 2차(64.0%)에 비해 4.8%p 상승
-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소속 정당'(27.6%)과 '정책/공약'(27.4%)을 가장 고려
-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정당의 정책/공약'(27.7%)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0.3%),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19.4%)을 가장 고려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모두 '정책·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에는 '소속 정당'도 함께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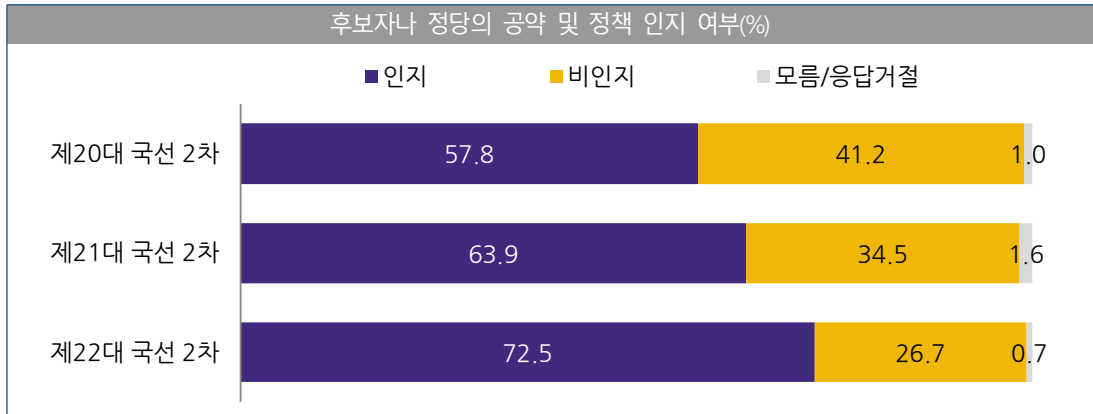
주) 제22대 국선부터 후보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정당 결정 여부도 함께 물어보는 것으로 선택지가 변경되어 비교시 유의해야 함.
제22대 국선 2차의 '후보 결정했다' 68.8%는 '후보자, 정당 모두 결정했다'(67.0%)와 '후보자만 결정했다'(1.8%)를 합산한 값임



4.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 및 정책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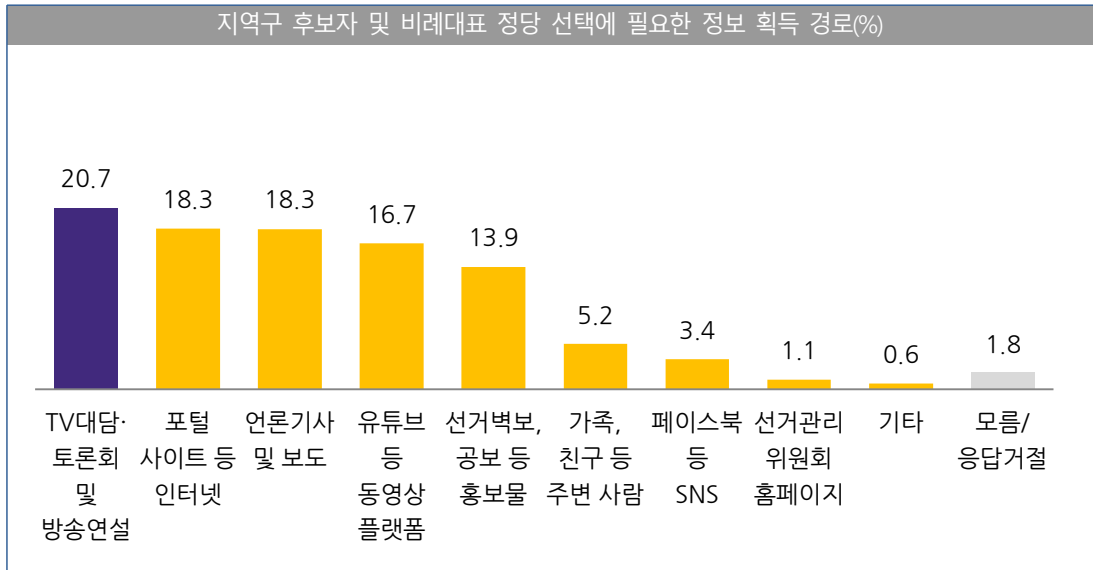
●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72.5%가 인지

→ 정책·공약 인지도가 제20대 국선 2차 대비 14.7%p, 제21대 국선 2차 대비 8.6%p 증가



5.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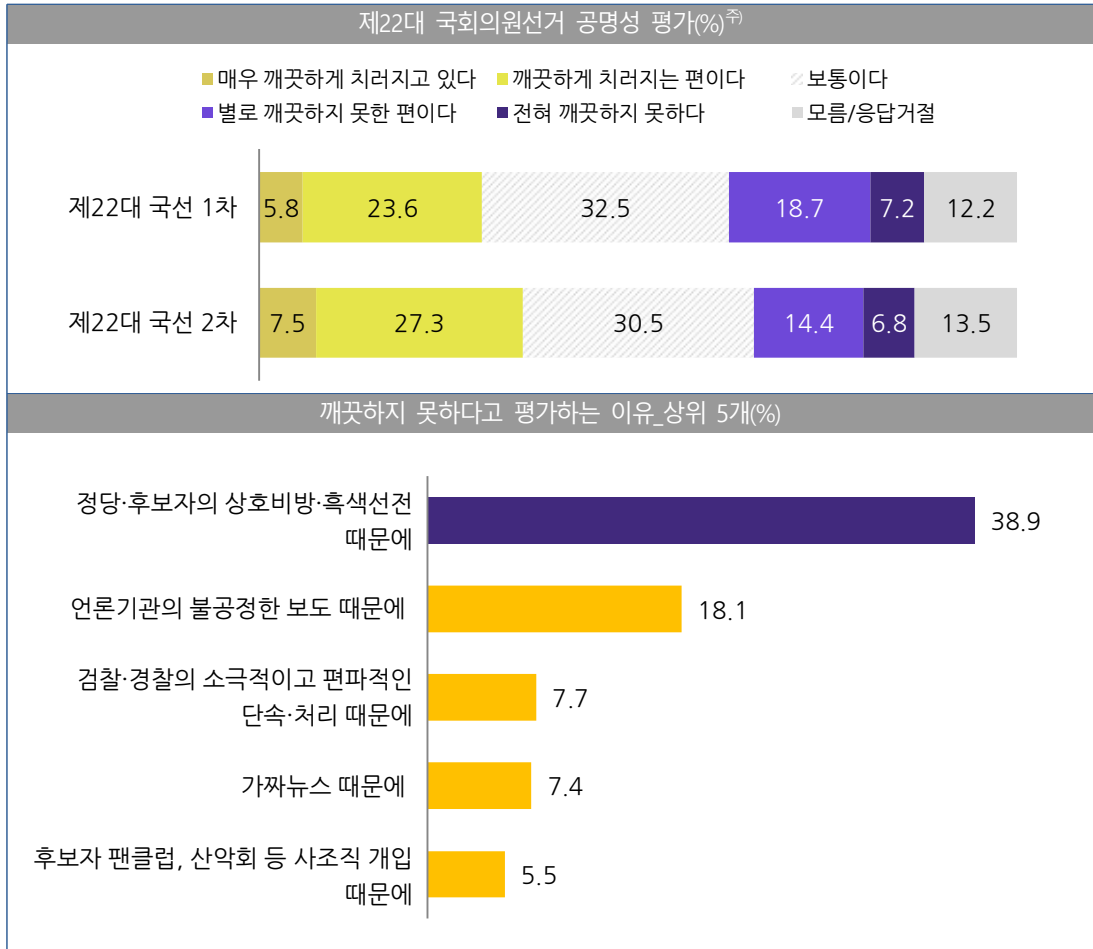
- 'TV대담·토론회 및 방송 연설'(20.7%),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및 '언론기사 및 보도'(각 18.3%)가 후보자나 지지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
-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16.7%), '선거벽보, 공보 등 홍보물'(13.9%) 등에서도 후보자 및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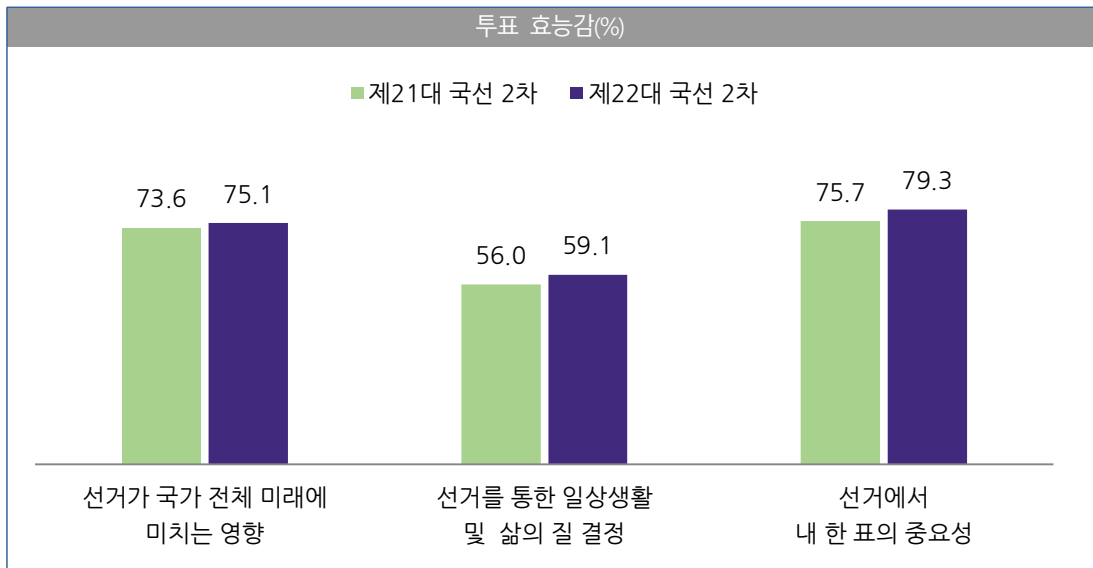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에 대해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34.8%,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1.2%
-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3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주) 제21대 국선 2차에서는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깨끗하다(매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 깨끗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55.8%, ‘깨끗하지 못하다(별로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 전혀 깨끗하지 못하다)’ 26.8%, ‘모름/무응답’ 17.4%로 나타남

7. 투표 효능감

- 투표 효능감에 관한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9.3%),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75.1%),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5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영역에서의 투표 효능감은 제21대 국선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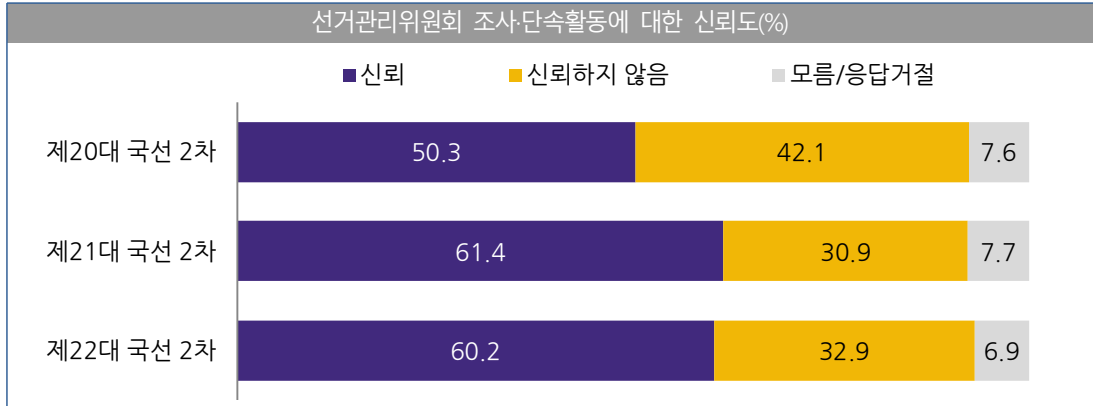




8.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속활동에 대한 신뢰도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속활동에 대해 ‘신뢰한다’ 60.2%, ‘신뢰하지 않는다’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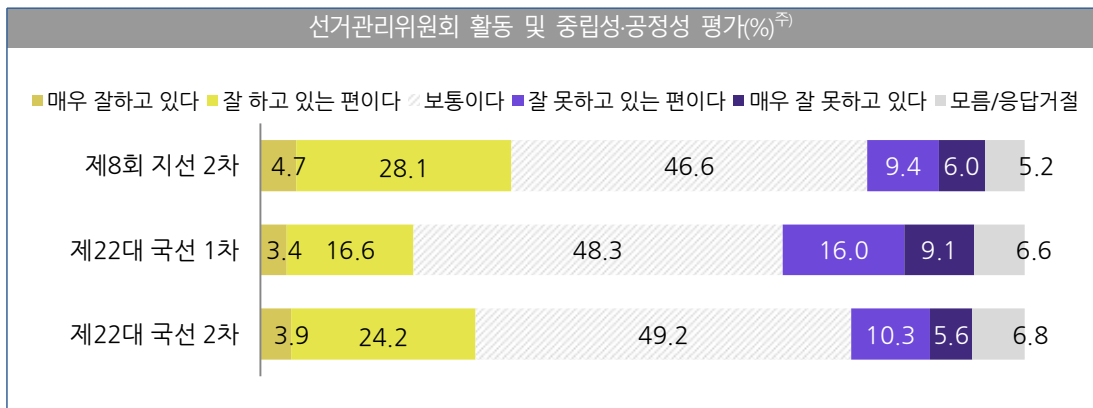
→ 제20대 국선 2차(50.3%) 대비 9.9%p 높고, 제21대 국선 2차(61.4%) 대비 1.2%p 낮음



9.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 49.2%로 가장 많았고, ‘긍정’(28.1%)이 ‘부정’(15.9%)보다 높게 나타남

→ 제8회 지선 2차 대비 긍정비율 4.7%p 하락하였으나, 제22대 국선 1차 대비 8.1%p 상승



주) 제21대 국선 2차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 잘 하고 있는 편이다)’ 62.6%, ‘잘 못하고 있다(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 매우 잘 못하고 있다)’ 24.5%, ‘모름/무응답’ 12.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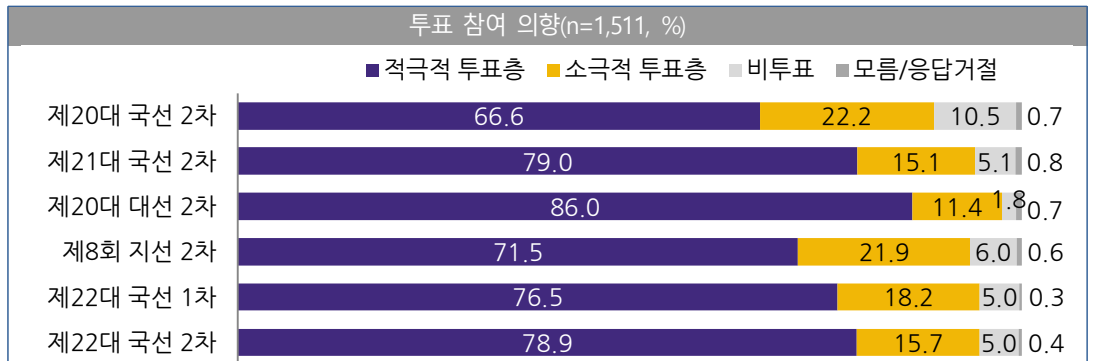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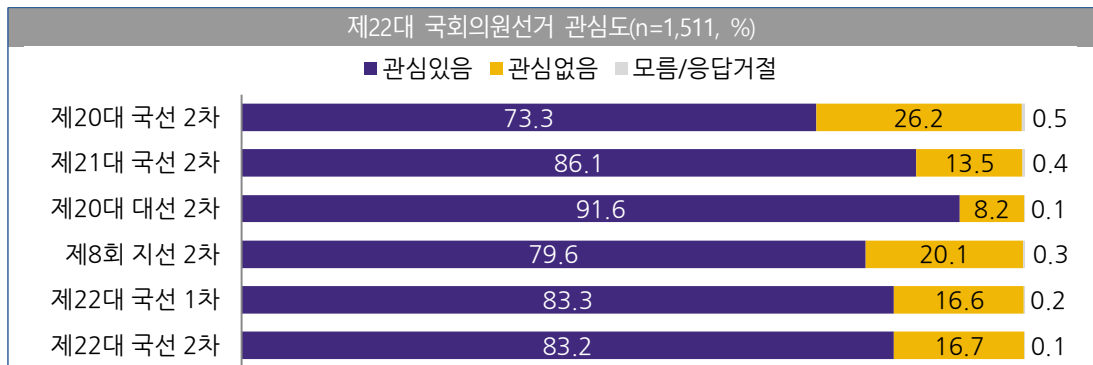
Ⅱ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심 있음' 83.2%, '반드시 투표할 것' 78.9%

→ 제21대 국선과 비교해 선거 관심도는 50대와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적극 투표 의향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승하였으며,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선거 관심도 및 적극 투표 의향 모두 낮아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도 질문 결과, '매우 관심 있음' 55.4%, '약간 관심 있음' 27.8% 등 유권자의 83.2%가 관심을 표명,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78.9%로 조사됨



연령별(%)	선거 관심도						적극 투표 의향					
	제20대 국선2차 ^{주)}	제21대 국선2차	제20대 대선2차	제8회 지선2차	제22대 국선1차	제22대 국선2차	제20대 국선2차 ^{주)}	제21대 국선2차	제20대 대선2차	제8회 지선2차	제22대 국선1차	제22대 국선2차
전체	73.3	86.1	91.6	79.6	83.3	83.2	66.6	79.0	86.0	71.5	76.5	78.9
(18)19~29세	70.5	74.1	82.6	56.7	56.8	57.9	55.3	60.4	73.8	44.6	52.3	50.3
30대	68.9	82.2	91.6	74.3	77.9	72.7	58.3	75.6	83.6	64.8	65.8	68.8
40대	74.8	90.9	91.9	82.8	88.1	87.5	72.3	84.4	86.8	71.8	76.9	81.7
50대	73.8	87.9	95.1	84.1	90.8	92.0	67.4	80.3	89.2	76.7	84.2	87.0
60대		91.6	94.7	90.6	91.7	91.2		86.6	89.4	85.3	86.8	89.0
70세 이상	76.9	92.0	94.2	90.8	91.6	95.4	75.7	90.9	95.0	88.7	90.8	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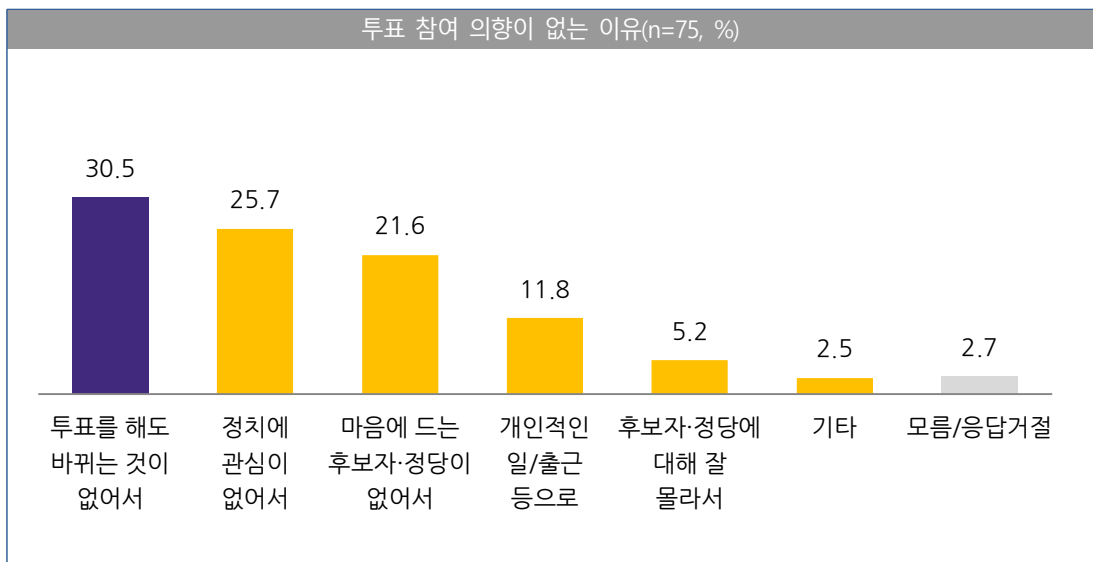
주) 제20대 국선 2차는 60대 이상으로 조사



2.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25.7%), ‘마음에 드는 후보자·정당이 없어서’(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제21대 국선 2차 대비 낮게 나타난 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25.7%), ‘마음에 드는 후보자·정당이 없어서’(21.6%)라는 응답은 제21대 국선 2차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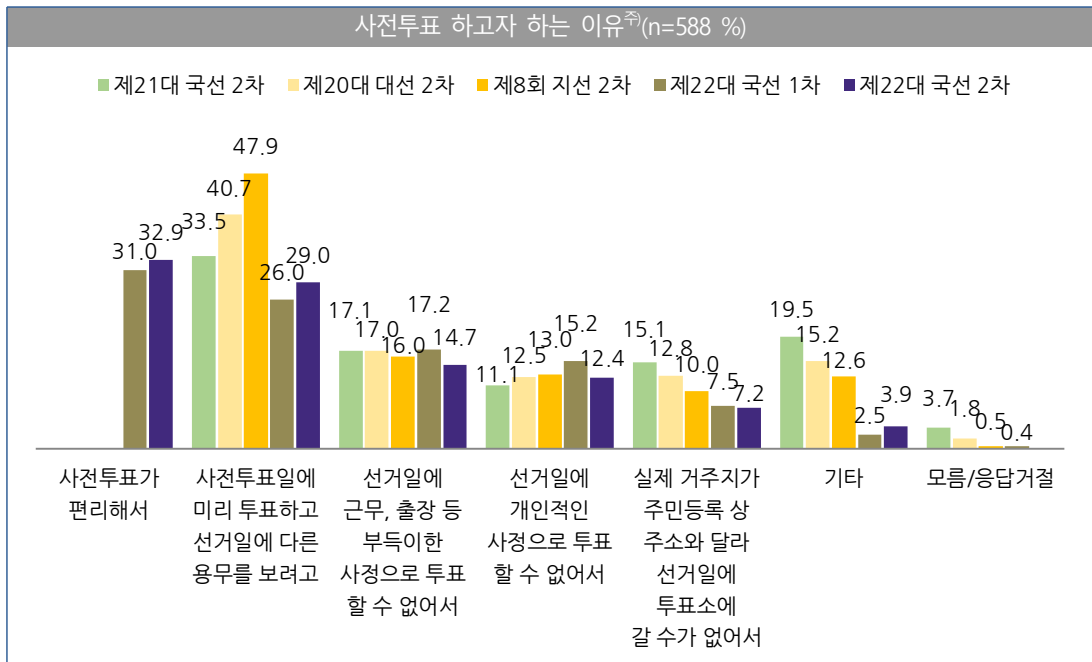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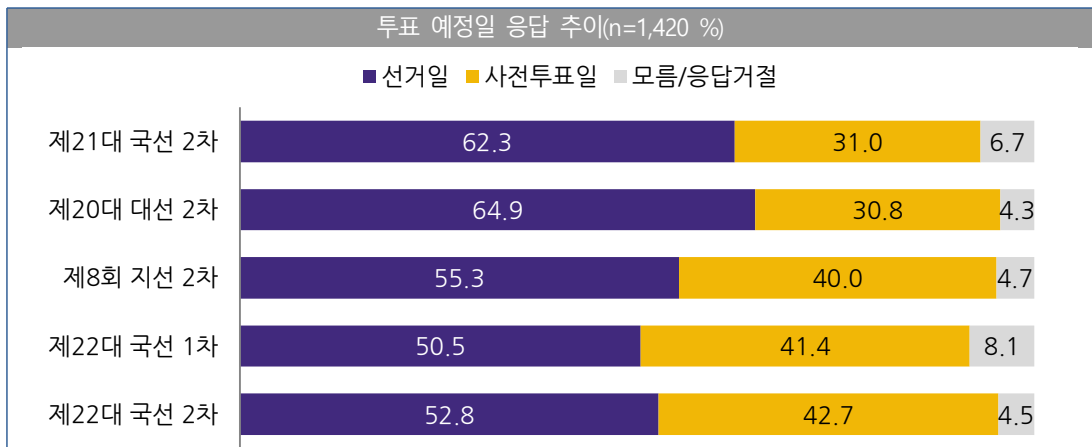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20대 국선 2차	제21대 국선2차	제20대 대선2차	제8회 지선 2차	제22대 국선 1차	제22대 국선 2차
	(n=157)	(n=76)	(n=28)	(n=90)	(n=75)	(n=75)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49.1	35.1	14.4	33.4	22.9	30.5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20.4	19.8	25.8	20.8	43.0	25.7
마음에 드는 후보자·정당이 없어서	10.4	15.9	47.8	16.9	13.6	21.6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7.3	1.4	4.9	10.9	10.5	11.8
후보자·정당에 대해 잘 몰라서	10.0	3.7	0.0	16.7	9.0	5.2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19.9	0.0	0.0		
기타	2.4	4.2	7.1	1.3	1.1	2.5
모름/응답거절	0.4	1.7	0.0	0.0	0.0	2.7

3. 투표 예정일 / 사전투표 하고자 하는 이유

- 투표의향자의 52.8%는 '선거일인 4월 10일'에 투표하겠다, 42.7%는 '사전투표일인 4월 5일 또는 6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
- 사전투표 의향은 42.7%로 제21대 국선 대비 11.7%p 증가하였으며, 제8회 지선 대비 2.7%p 증가
 -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32.9%),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9.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사전투표 참여의향은 제21대 국선(31.0%), 제20대 대선(30.8%), 제8회 지선(40.0%) 대비 높음



주) '사전투표가 편리해서'는 제22대 국선 1차에서 최초로 추가된 선택지로 결과 해석 시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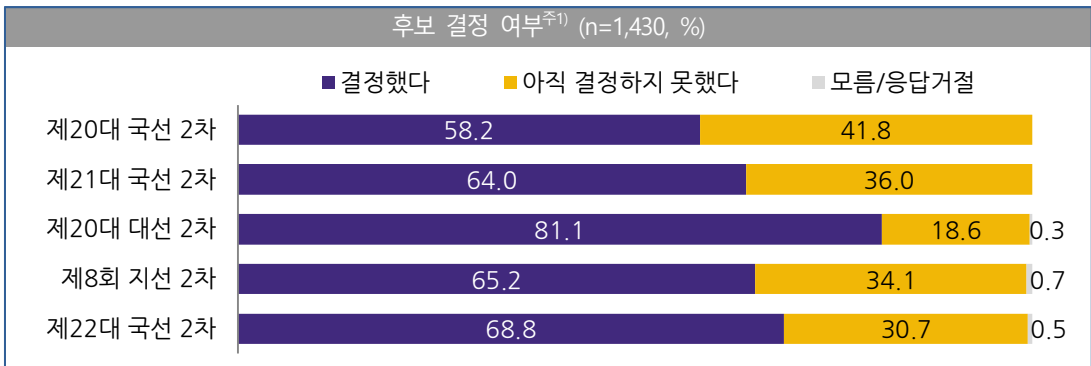


4. 지역구 후보자 결정 여부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지역구 후보자 결정’ 68.8%, 제21대 2차(64.0%)에 비해 4.8%p 상승
-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소속 정당’(27.6%)과 ‘정책/공약’(27.4%)이 가장 중요
-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정당의 정책/공약’(27.7%)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0.3%)이 가장 중요
 -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모두 ‘정책/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에는 ‘소속 정당’도 함께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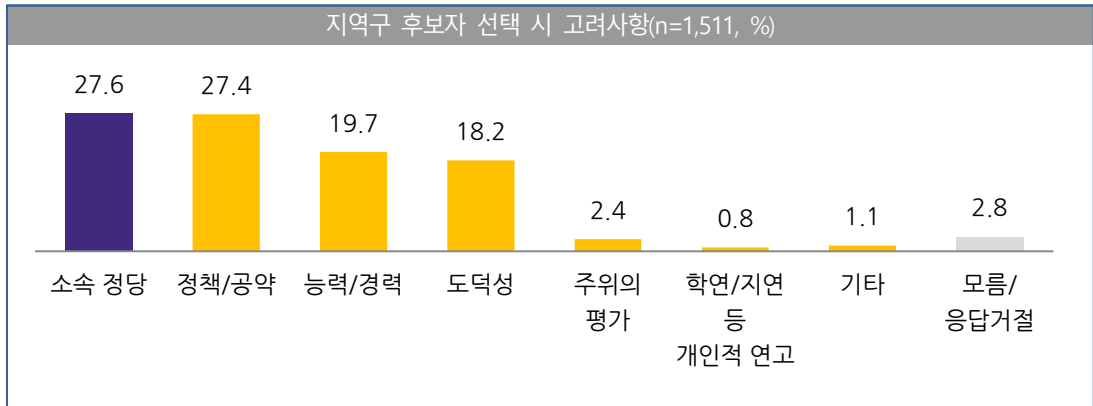
·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속 정당’이 27.6%, ‘정책/공약’이 27.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위의 평가’(2.4%),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0.8%) 등은 낮게 나타남

·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역시 ‘정당의 정책/공약’(27.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0.3%),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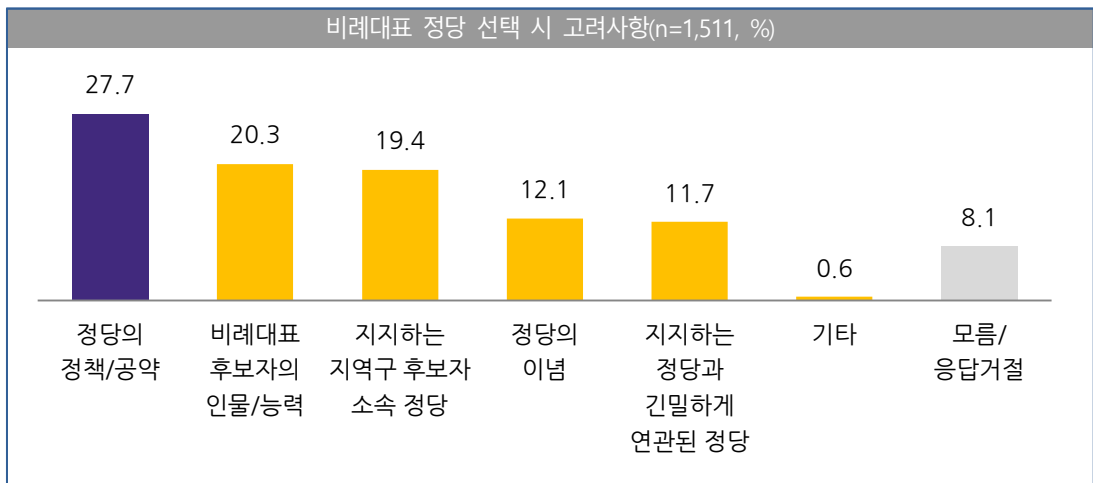
후보자, 비례대표 정당 결정 여부(%)	후보자, 정당 모두 결정했다	후보자만 결정했다	정당만 결정했다	후보자, 정당 모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모름/응답거절
제22대 국선 2차	67.0	1.8	8.6	22.0	0.5

주1) 제22대 국선부터 후보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정당 결정 여부도 함께 물어보는 것으로 선택지가 변경되어 비교시 유의해야 함. 제22대 국선 2차의 ‘후보 결정했다’ 68.8%는 ‘후보자, 정당 모두 결정했다’(67.0%)와 ‘후보자만 결정했다’(1.8%)를 합산한 값임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고려사항 ^{주2)} (%)	소속 정당	정책/공약	능력/경력	도덕성	주위의 평가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	인물·능력·도덕성	정치 경력	출신 지역	기타	모름/응답거절
제19대 국선 2차	16.5	38.1	-	-	7.3	0.6	24.8	4.9	0.5	1.1	6.3
제20대 국선 2차	18.9	28.2	-	-	4.1	1.1	33.3	6.7	1.5	3.8	2.4
제21대 국선 2차	31.1	28.7	-	-	2.7	0.2	25.2	5.5	1.0	0.4	5.3
제22대 국선 1차	28.9	27.0	22.4	16.5	2.8	0.5	-	-	-	0.2	1.7
제22대 국선 2차	27.6	27.4	19.7	18.2	2.4	0.8	-	-	-	1.1	2.8

주2) '능력/경력', '도덕성'은 기존의 '인물·능력·도덕성', '정치경력' 선택지에서 제22대 국선에 변경된 것으로 비교시 유의해야 함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정당의 정책/공약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정당의 이념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기타	모름/응답거절
제22대 국선 1차	22.9	24.8	19.6	12.2	13.5	0.2	6.8
제22대 국선 2차	27.7	20.3	19.4	12.1	11.7	0.6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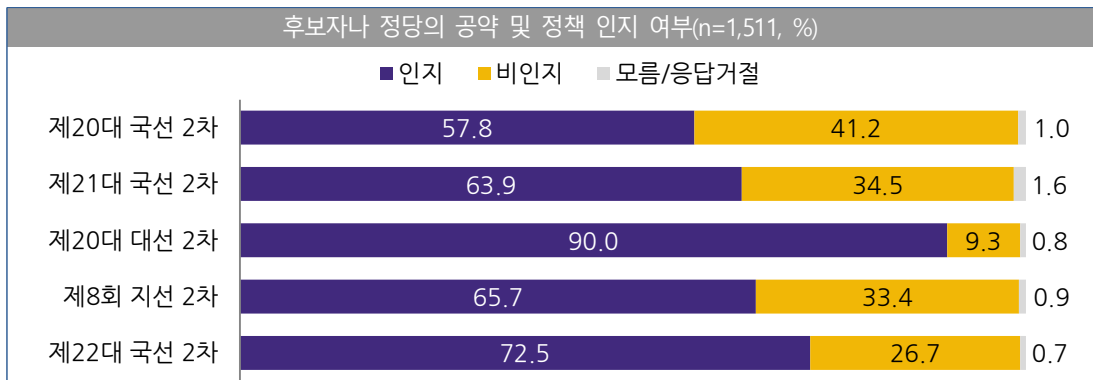


5.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 및 정책 인지 여부

●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72.5%가 인지

→ 정책·공약 인지도가 제20대 국선 2차 대비 14.7%p, 제21대 국선 2차 대비 8.6%p 증가

- 유권자 10명 중 7명(72.5%)은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
- 제20대 국선(57.8%), 제21대 국선(63.9%), 제8회 지선(65.7%)에 비해 정책·공약 인지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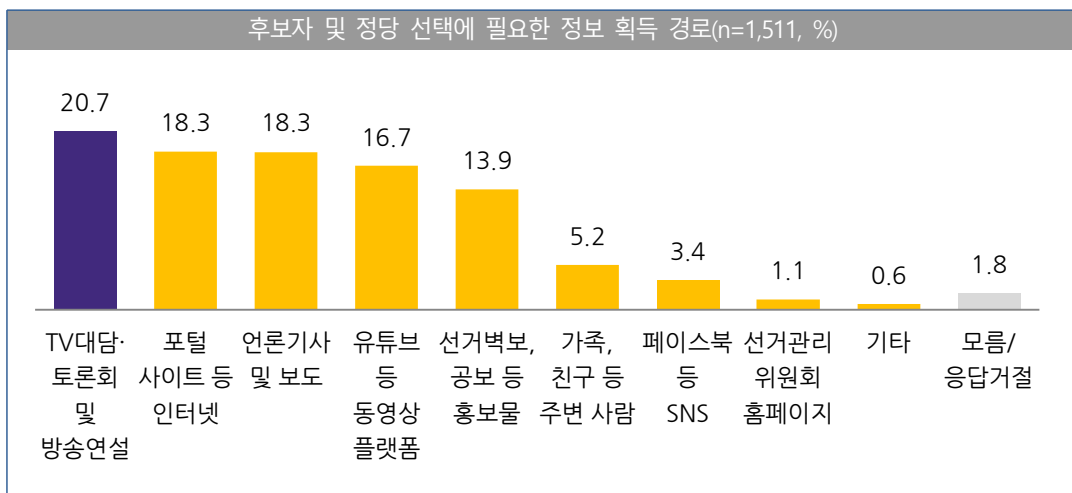


6. 후보자 및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TV대담·토론회 및 방송 연설’(20.7%),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18.3%), ‘언론기사 및 보도’(18.3%)가 후보자나 지지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

→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16.7%), ‘선거벽보, 공보 등 홍보물’(13.9%) 등에서도 후보자 및 정당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TV대담·토론회 및 방송 연설’은 60대 및 70세 이상(각각 30.2%, 46.3%),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은 20대 및 30대(각각 27.3%, 31.5%),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은 50대(25.4%)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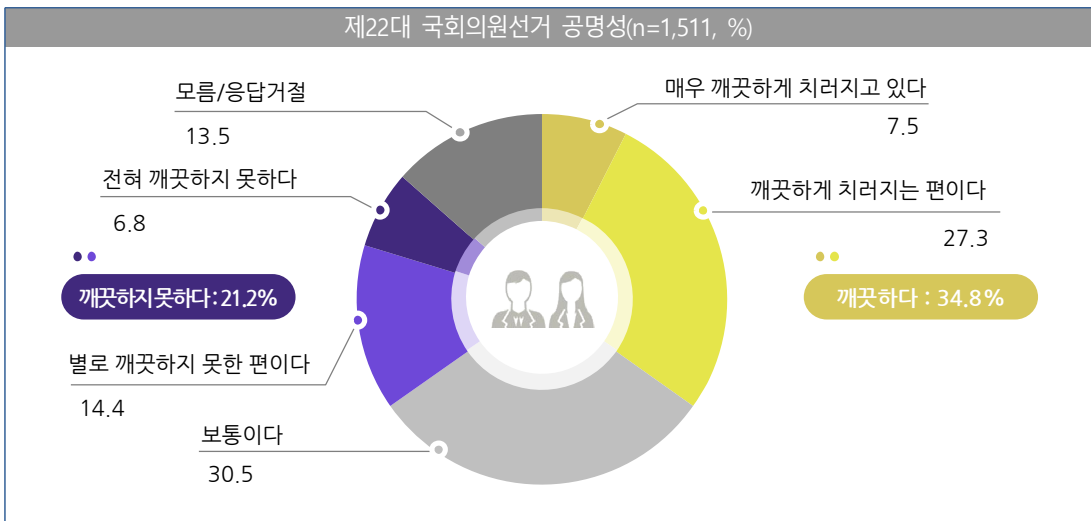


연령대별 정보획득경로 Top 4 (%)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언론기사 및 보도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
만18~29세	7.2	27.3	15.4	8.1
30대	12.5	31.5	15.2	13.3
40대	13.9	23.1	16.7	22.4
50대	16.9	14.5	20.4	25.4
60대	30.2	10.9	20.4	17.5
70세 이상	46.3	2.9	21.0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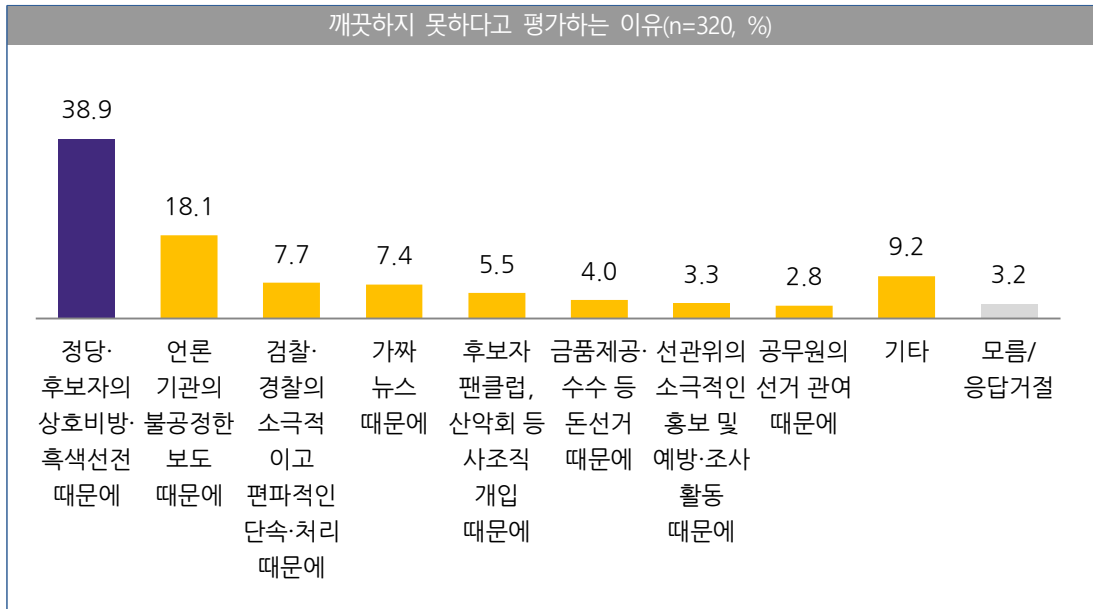
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 및 이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에 대해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응답은 34.8%,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1.2%
-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3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지난 제21대 국선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29.0%) 대비 9.9%p 증가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성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7.5%, ‘깨끗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27.3% 등 유권자의 34.8%가 공명성에 대해 긍정 평가해 부정 평가(21.2%)보다 13.6%p 높음
-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8.9%)과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18.1%)에 응답이 집중되었으며, 제21대 국선과 비교해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응답은 9.9%p 증가함



주) 제21대 국선 2차에서는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깨끗하다(매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 깨끗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55.8%, ‘깨끗하지 못하다(별로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 전혀 깨끗하지 못하다)’ 26.8%, ‘모름/무응답’ 17.4%로 나타남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_상위 3개 ^{주)} (%)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검찰·경찰의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단속·처리 때문에
제20대 국선 2차	36.7	22.1	6.1
제21대 국선 2차	29.0	31.9	5.9
제20대 대선 2차	42.7	29.0	9.2
제8회 지선 2차	31.5	32.2	8.1
제22대 국선 1차	35.2	22.9	11.1
제22대 국선 2차	38.9	18.1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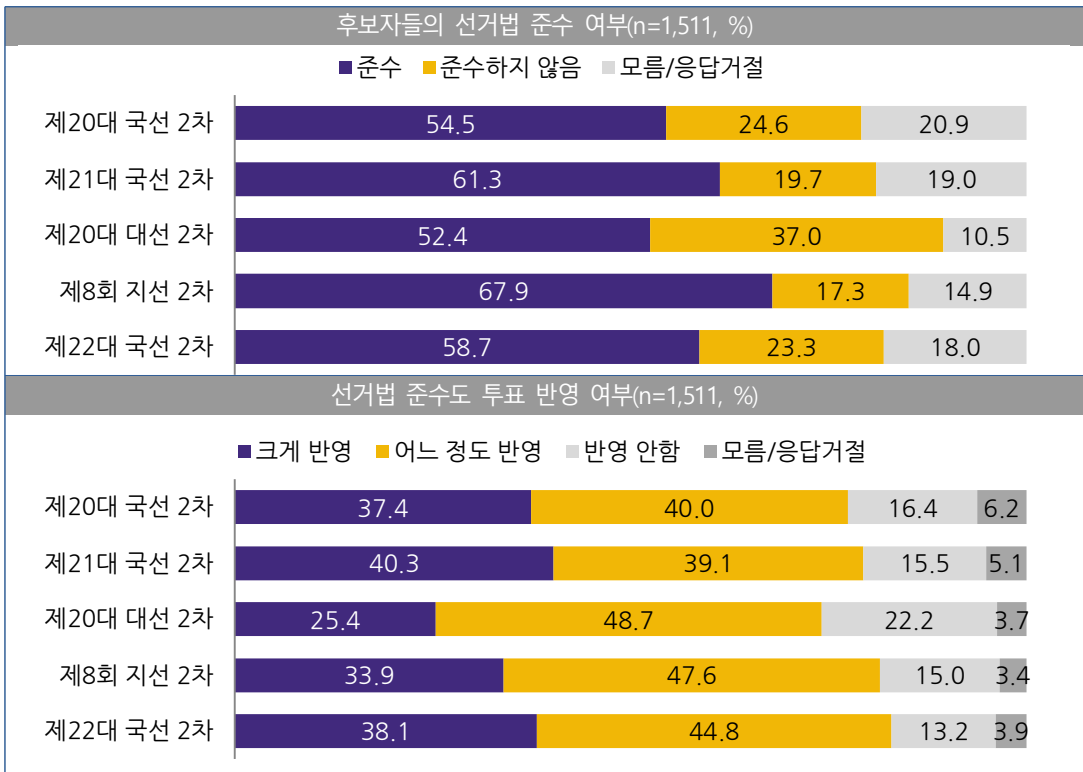
주) 깨끗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_상위 3개는 제22대 국선 2차 기준임



8. 후보자 선거법 준수 여부 / 선거법 준수도 투표 반영 여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 58.7%
 - 지난 제21대 국선(61.3%) 대비 2.6%p 감소
- 선거법 준수 여부 투표에 '반영하겠다' 83.0%
 - 지난 제21대 국선(79.4%) 대비 3.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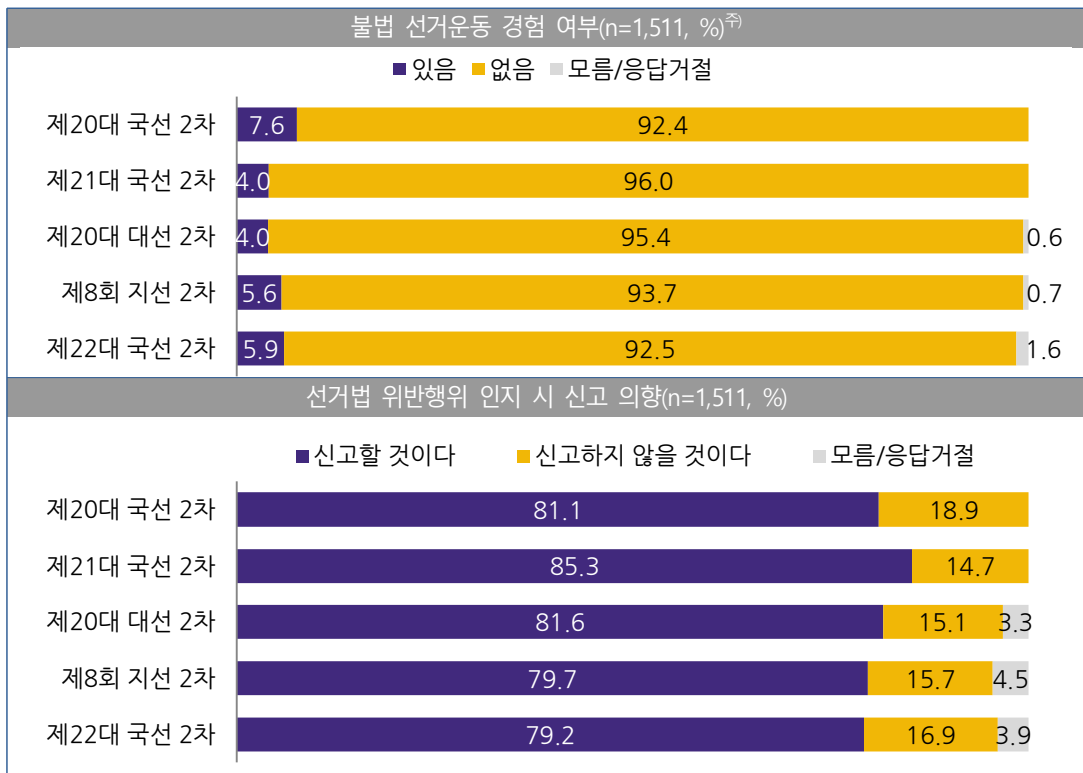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인식은 58.7%로, 제21대 국선(61.3%)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선거법 준수를 투표에 반영하겠다('크게 반영' + '어느 정도 반영')는 의견은 83.0%로 제21대 국선(79.4%), 제20대 대선(74.1%), 제8회 지선(81.5%)보다 높게 나타남



9.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의향

- 금품/향응 등 불법 선거운동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 있다' 5.9%
→ 지난 제21대 국선(4.0%) 대비 1.9%p 증가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 있다' 13.2%
- 선거법 위반행위 인지 시 '신고할 것이다' 79.2%로, 제21대 국선(85.3%) 대비 6.1%p 하락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금품/향응 등 불법선거운동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5.9%로, 제21대 국선 이후 증가 추세임
- 딥페이크 선거영상을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13.2%로 나타남
-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것이다'는 응답자는 79.2%로, 제20대 국선 이후 가장 낮음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모름/응답거절
돈봉투, 선물, 음식물, 선심 관광 등	5.9	92.5	1.6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13.2	84.1	2.7

주)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역대 선거 비교는 '돈봉투, 선물, 음식물, 선심 관광 등을 제공' 문항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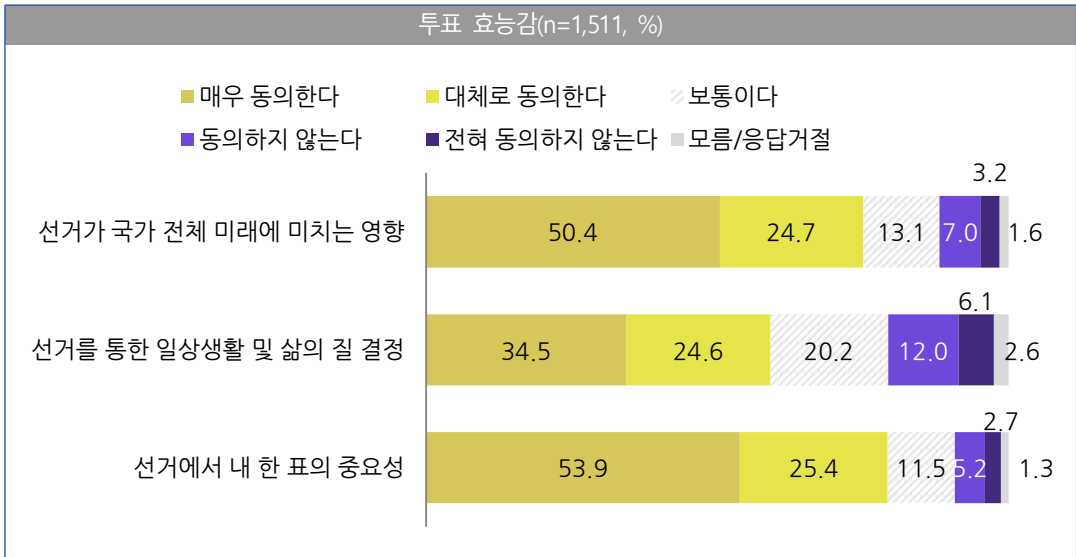


10. 투표 효능감

- 투표 효능감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79.3%),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75.1%),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5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영역에서의 투표 효능감은 제21대 국선 대비 증가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전체 영역에서 제21대 국선 대비 증가하였으며,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 두 항목의 동의 비율은 75%를 상회하여, 투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효능감을 보임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에 대한 동의 비율은 59.1%로 이전 선거에 비해 높지만, 타 항목 대비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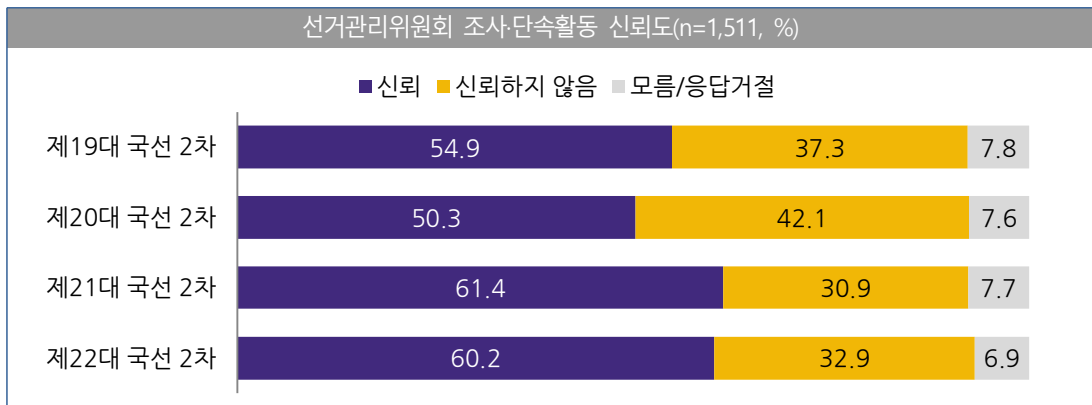
투표 효능감 '동의' (%)	제21대 국선 2차	제20대 대선2차	제8회 지선 2차	제22대 국선 1차	제22대 국선 2차
선거가 국가 전체 미래에 미치는 영향	73.6	78.8	68.1	72.0	75.1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56.0	58.5	49.8	57.5	59.1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75.7	77.9	69.6	78.5	79.3

11.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속활동 신뢰도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속활동에 대한 신뢰도 60.2%

→ 제21대 국선 2차(61.4%)에 비해 1.2%p 낮으나, 제19대 국선(54.9%), 제20대 국선(50.3%)에 비해 높음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속활동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신뢰한다'(60.2%)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제21대 국선 2차(61.4%)에 비해 1.2%p 낮으나, 제19대 국선(54.9%), 제20대 국선(50.3%)에 비해 높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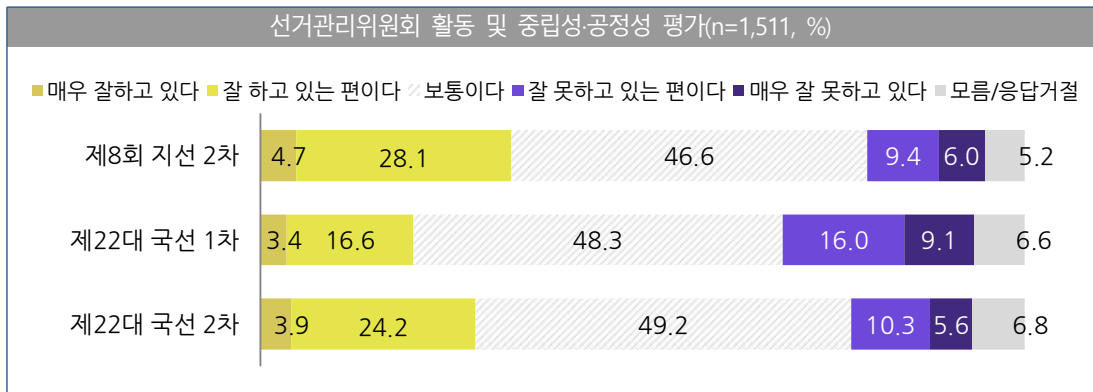


12.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 49.2%로 가장 많았고, ‘긍정’(28.1%)이 ‘부정’(15.9%)보다 높게 나타남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긍정평가가 30.2%로 관심이 없는 유권자(17.9%)보다 높았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3.9%, ‘잘하고 있는 편이다’ 24.2% 등 긍정평가가 28.1%로 부정평가(15.9%)보다 높게 나타남. 긍정평가는 제8회 지선(32.8%) 대비 4.7%p 낮으나, 제22대 국선 1차(20.0%) 대비 8.1%p 높음.
- 선거 관심 있는 층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선거 관심 없는 층에 비해 높음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	잘하고 있다	보통	잘 못하고 있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28.1	49.2	15.9	6.8
선거 관심 있는 층	30.2	47.0	16.8	5.9
선거 관심 없는 층	17.9	60.1	10.8	11.1